

# 한국의 원폭문학 고찰\*

- 『흉터의 꽃』을 중심으로 -

이정희\*\*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흉터의 꽃』의 가치
3. 『흉터의 꽃』 고찰
  - 3.1. ‘나’라는 주인공이 처한 입장
  - 3.2. 『흉터의 꽃』에 나타난 피폭 상황
  - 3.3. 『흉터의 꽃』에 나타난 피폭 3세대
4. 한국 원폭 피해 여성들의 삶
5. 나오는 말

---

\* 본 연구는 위덕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위덕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leejh@uu.ac.kr

## [국문 초록]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조건 항복을 결정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폭 투하로 인해 인류의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가져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폭병으로 죽어갔다. 일본에서는 작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이나 시(詩)를 통해 원폭 이야기를 남겼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원폭문학이라는 장르가 탄생하였다. 이에 비해 원폭피해자가 일본 다음으로 많은 한국에서는 원폭을 다룬 문학 작품은 없었다. 그런데, 2017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소설 형식으로 원폭피해를 다룬 작품 『흉터의 꽃』이 발표되었다. 한국 최초의 원폭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원폭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는 작가 김옥숙의 『흉터의 꽃』을 고찰한 것이다. 『흉터의 꽃』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가족의 3대에 걸친 이야기이다. 작품에 나타난 원폭피해 상황, 원폭피해자 가족들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원폭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며, 인간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드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원폭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본 논문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주제어** : 원폭문학, 한국인 원폭 피해, 원폭병, 흉터의 꽃, 합천

## 1. 들어가기

‘원폭문학’은 1945년 일본 패전 이후 일본에서 새롭게 나타난 장르다. ‘원폭문학’은 말 그대로 원폭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비참한 피해 상황을 소재로 한 문학을 말한다. 원폭피해자<sup>1)</sup>들의 원폭체험이 문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소설, 시, 만화, 영화 등으로 표현되어 나오면서 반핵운동으로 퍼져 그 폭이 넓어져 갔고, 그 과정에서 ‘원폭문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sup>2)</sup>

일본에서는 1945년 패전 직후부터 원폭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가 재빠르게 이루어졌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은 피폭체험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하라 타미키(原民喜, 1905~1951)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1947년 『여름 꽃(夏の花)』이라는 작품으로 발표해 원폭문학의 효시가 되었다.<sup>3)</sup> 게다가 일본에서는 이 『여름 꽃』은 1974년에 고등교육국어교과서에 실리게 된다. 원폭에 관한 문학작품이 공교육 제도 속의 교과서에 채용되었다는 것은 일본 국민의 공통된 기억과 체험의 표상으로 원폭문학이 확고히 한 장르로서 자리를 잡은 것을 의미한다.

그럼, 한국은 어떠한가. 1945년 8월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피해자 중 한국인 피해자는 히로시마(広島)에서 약 5만 명, 나가사키(長

1) 원자 폭탄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크게 원폭피폭자(原爆被爆者)와 원폭피해자(原爆被害者)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사망하거나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과 태아를 말하고, 후자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원폭피폭자와 원폭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원폭피해자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다.

2) 참고, 「일본 원폭문학의 대표작 이부세 마사지(井伏鱒二)의 『검은 비(黒い雨)』 고찰」 『일본문화학보』75집, 2017.11. 참조.

3) 참고, 「일본 원폭문학의 효시 하라 타미키(原民喜)의 『여름 꽃(夏の花)』 고찰」 『국제언어문학』37호, 2017.8. 참조. 하라 타미키는 자신의 원폭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에 작품으로 남겼으며, 반전반핵을 주장하다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에 미국이 한국에도 원폭을 투하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원폭에 대한 노이로제와 원폭 투하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1951년 3월 철로 위에 누워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崎)에서 약 2만 명으로 전체 약 7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피폭 규모는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원폭피해자가 많이 있는 나라가 한국인 것이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침묵을 강요당했고, 침묵하는 동안 수많은 피폭자들이 원폭병으로 죽어갔다. 이들 중에는 자신이 원폭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도 모른 채 죽어간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sup>4)</sup>

해방 직후 일본과는 국교가 단절되어 공식적으로 일본에게 원폭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게다가 귀국한지 5년 만에 발발한 6.25전쟁으로 인해 이들의 생활은 더욱 처참했으며, 게다가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를 드러내는 것은 미국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시 상황에서는 빨갱이로 낙인찍히는 것만큼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후 한국은 원폭피해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1964년 한국원자력병원이 203명의 피폭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에 일본 히로시마에 살고 있던 재일교포들도 한국 원폭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75년에 언론인 박수복이 전국에 흩어져 사는 원폭피해자들을 만나 23명의 생애사를 기록한 책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가 출간되었다.<sup>5)</sup>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 책은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비참한 삶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어쩌면 이때부터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원폭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피폭 2세들에 대한 목소리도 들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2017년 원폭 관련 소설이 처음 출판되

4) 김경애, 『원폭 피해 한국 여성들』(푸른사상, 2019), 17면.

5) 박수복,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창원사, 1975).

었다. 그것이 바로 본 논문에서 다룬 『흉터의 꽃』이다. 『흉터의 꽃』은 원폭피해를 입은 일가족 3세대에 걸친 이야기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소설 『흉터의 꽃』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피폭 과정, 피폭 현황, 그리고 피폭 후의 그들이 겪었던 고통 등을 통해 원폭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고 인간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드는가를 고찰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지구상에 원폭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본 논문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 2. 『흉터의 꽃』의 가치

-재난은 기억하고 기록되어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간다. 불치병에 걸렸어도 자신이 못나서 걸렸다거나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전생의 업으로 운명이 짰거나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가난과 동반된 불행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체념하기 일쑤다.

1945년 8월 원자폭탄 투하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원폭피해자가 되어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하고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특히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한 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은 화상을 입었거나 부상당한 채로 한국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외에서 살다온 사람들과는 달리 피해의식 속에서 이 모든 불행이 자신 개인의 탓이라고 여기며 지냈다.

더군다나 당시 한국에서는 원폭병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 현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위한 치료센터를 운영한다거나 의료 지원을 하거나 하는데, 당시로서는 그런 시설이 전무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자 당사자들의 몫으로 돌아간 것이다.

고통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고통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폭력이나 국가 차원의 재난 또는 사건 속에서 기인했다면 국가는 개인의 고통은 분담하고,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sup>6)</sup>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재난을 기억하고 기록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흉터의 꽃』은 원폭피해를 밝히고 원폭 증상을 알리고, 그들의 처절한 삶을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자료이며,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원폭 피해자들이 고군분투해서 혼자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하여 국가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때이다.

### 3. 『흉터의 꽃』 고찰

#### 3.1. ‘나’라는 주인공이 처한 입장

작품 『흉터의 꽃』은 ‘나’라는 주인공 정현재가 이끌어가는 1인칭 작가시점이다. 정현재는 소설가이자 중학교 국어교사다. 그는 같은 학

6)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동아시아, 2017), 176면

교 영어교사와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6년 만에 딸아이를 갖게 되는데, 딸은 다운증후군으로 장애아이다. 아내는 3년 전에 교직을 그만두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한국에서 딸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적다고 하는 캐나다 벤쿠버로 딸을 데리고 떠났다.

그런데 어느 날 1인 출판사를 운영하는 무명 소설가인 친구 K를 만나, “네 고향이 합천이라는 건, 네가 원폭 소설을 써야 할 운명이라는 뜻”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때 정현재는 합천이 한국의 히로시마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 한다. 합천은 실제로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릴 만큼 원폭 피해자가 많은 곳이다. 1945년 당시 원폭 피해자의 70%가 합천 출신이었고, 현재 국내 원폭 피해 생존자 2000여명 가운데 600여명이 합천에 거주하고 있다. 이것이 합천이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이유인 것이다.

정현재에게 있어서 고향 합천은 애증의 땅이었다. 합천 장바닥에서 술에 취한 채 술꾼들과 먹살을 움켜잡고 싸웠던 알콜중독자인 아버지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고향은 히로시마이다. 사실 정현재는 자신이 건강한 원폭 2세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장애아 딸의 출생으로 인해 어렵פות이 원폭을 당했다는 돌아가신 아버지 정성태의 흔적을 찾고 싶어 했다.

정현재는 원폭 70주년의 해에 합천에 있는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찾아 자신의 아버지가 피폭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한편, 소설 작성을 위해 회관 사무장에게 원폭피해자들을 만나 구술 작업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한다. 정현재의 아버지는 원폭 투하 당시 히로시마에서 폭심지 3km이내에서 피폭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up>7)</sup> 그러므로

7) 당시 히로시마에 있던 일본제강 등의 공장들은 폭심지에서 1~4k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그 부근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거주지역은 폭심지로부터 5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 원폭피해가 심했던 것이다.

정현재 아버지가 원폭 1세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정현재가 원폭 2세라는 것이 기정사실이 된 셈이다. 정현재만이 아니었다. 정현재의 누나와 여동생도 건강한 원폭 2세대. 그러나 정현재의 딸은 원폭병이 유전된 원폭 3세 환우인 것이다. 과거 정현재는 자신의 딸이 장애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양육을 떠넘겼다. 아내 역시 처음에는 힘들어서 한국에서 도망치듯 캐나다로 갔지만, 그곳에서 장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껴안아주는 사람들 속에서 장애아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극복하게 된다.

제발 채현이를 있는 그대로 봐줘. (중략) 아이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구?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어. 우리 딸이 살아갈 미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당신 이름도 현재, 정현재잖아?<sup>8)</sup>

이런 아내의 말에 정현재는 1세대 원폭 희생자 아버지와 건강한 원폭 2세인 자신, 그리고 원폭 3세 환우인 딸을 받아들이게 된다. 아내의 말 중에서 작가가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을 '현재'라고 명명한 것이 상당히 의도되었던 작명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원폭 피해 1세대들의 과거로 인해, 2세대인 현재가 전개되고, 미래에는 3세대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암묵적인 장치가 아닐 수 없다.

### 3.2. 『흉터의 꽃』에 나타난 피폭상황

작품 『흉터의 꽃』에는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의 풍경을 그린 대목이 나온다. 당시 히로시마에는 먹고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한

8) 김옥숙 『흉터의 꽃』(새움, 2017), 339면

국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나라를 빼앗긴 죄로 영문도 모른 채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인들, 일본의 수탈로 살 길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 수만 명이 히로시마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오전 8시 15분 15초. 평온했던 일상이 원폭 투하로 인해 무간지옥이 되었다.<sup>9)</sup>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사람들의 살과 내장과 뼈가 녹아 없어졌고, 전신주와 나무, 철근과 콘크리트, 벽돌과 바위가 순식간에 녹아버렸다.<sup>10)</sup>

섬광이 지나가고 난 뒤 강력한 열폭풍과 화재가 히로시마를 집어삼켜, 걸어가던 사람들, 앉아 있던 사람들, 손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 전차를 타려던 사람들은 그 자세 그대로 순식간에 검은 석탄가루로 변해 열폭풍에 날아가 버렸다. 마치 이슬방울이 사라지듯, 먼지가 사라지듯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다. 거리의 나무들마저 뿌리째 뽑혀 날아갔고, 건물의 벽과 지붕들도 종잇장처럼 날아올랐다. 유리창은 산산조각으로 깨져 사람들의 온 몸에 박혔다.<sup>11)</sup>

얼마 지나지 않아 불붙은 폐허의 도시 위로 검은 석유처럼 진득한 비가 내렸다. 방사능의 검은 비였다.<sup>12)</sup> 타는 갈증을 식히기 위해 사람들은 검은 빗물을 받아 마셨다. 이 빗물은 사람들의 호흡기를 타고 허파와 폐, 심장, 뇌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이것이 평생, 아니 대를 이어 장애를 갖고 후세들이 태어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도시는 죽은 시체로 가득했고, 시체에 들러붙은 살점을 뜯어

9) 무간지옥(無間地獄)은 아비지옥(阿鼻地獄) 또는 무구지옥(舞救地獄)이라고 하며, 사람이 죽은 뒤, 그 영혼이 이곳에 떨어지면 그 당하는 고통이 끊임없기(無間)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작품 본문에 '무간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김옥숙, 『흉터의 꽃』(새움, 2017), 33면.

10) 김옥숙, 『흉터의 꽃』(새움, 2017), 39면.

11) 김옥숙, 『흉터의 꽃』(새움, 2017), 39~40면.

12) 이 '검은 비'를 주제로 일본에서는 일찍이 1965년 작가 이부세 마사지가 소설 『검은 비(黒い雨)』를 발표하여, 원폭문학이라는 장르가 자리 잡게 되었다.(참고, 「일본 원폭문학의 대표작 이부세 마사지(井伏鱒二)의 『검은 비(黒い雨)』 고찰」 『일본문화학보』75집, 2017.11. 참조.)

먹기 위해 까마귀들이 몰려들었다.<sup>13)</sup> 군인들이 트럭을 몰고 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갈고리로 찍어 짐짝처럼 실어다 장작 더미 위에 시체들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시체를 태우는 연기가 히로시마의 하늘을 뒤덮었다.<sup>14)</sup>

이렇게 히로시마에 있었던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피폭 상황으로 평생 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를 포함한 원폭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 3.3. 『흉터의 꽃』에 나타난 피폭 3세대

#### 3.3.1. 과거-원폭 1세대 이야기-

『흉터의 꽃』의 주축이 되는 이야기로 주인공 정현재가 인터뷰한 강분희할머니(이하 강분희)의 가족사이다. 강순구 일가족의 가계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15)</sup>

1대(원폭 1세) 강순구(부친, 천식, 피부병)- 내천댁(모친)
2대(원폭 1세) 강분희(딸, 전신 화상 흉터)
강태수(아들, 신부전증, 피부암, 자살),
강태복(아들)
※강분희 결혼 : 초혼 실패, 첫사랑 박동철과 재혼
3대(원폭 2세) 강분희와 박동철의 자녀.
박인옥(대퇴부무혈성괴사증)

13) 이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은 작가 한수산의 장편소설 『군함도』의 모태소설인 『까마귀』(전5권, 해냄출판사, 2003)이다. 몰려든 까마귀 떼 주위로 또 다른 까마귀 떼들이 날아와 시체에 달려드는 풍경은 쉽게 볼 수가 있었다고 한다.

14) 김옥숙 『흉터의 꽃』(새움, 2017), 53면

15) 이행선,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증언과 서사, 원폭문학」(『기억과 전망』39호, 2018, 겨울호), 161면 참조

박인규(어릴 때 원인모를 병으로 사망),  
 박인우(건강한 원폭 2세, 회사원)  
 ※박인옥 결혼: 백종수와 초혼, 이혼 후 슈퍼주인과  
 재혼, 슈퍼 주인과 이혼  
 4대(원폭 3세) 박인옥과 백종수의 자녀.  
 백진수(선천성 뇌성마비),  
 백진호(건강한 원폭 3세, 회사원)  
 ※백진호 결혼: 송현서와 결혼. 건강한 딸 백해인 출산

강분희의 부친 강순구는 합천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행한 토지조사사업에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토지는 강제로 몰수 당했다. 이에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갈 결심을 한다. 강순구는 25세에 결혼을 했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1930년에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히로시마에 정착을 했다. 그해에 히로시마에서 장녀 강분희가 태어났다. 강분희가 16살 되던 해인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하고 만다. 강분희는 얼굴과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강순구 역시 피폭으로 피부염과 천식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강순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위해 일본을 떠나 고향인 합천으로 되돌아온다.

(강분희의) 검붉은 화상 흉터는 마치 진흙반죽을 이겨 붙인 것처럼 보기 흉했다. 화상 흉터는 흉하게 부풀어 오르고 기름칠을 한 것처럼 번들거렸다. 목과 얼굴의 피부가 엉겨 붙어 목을 돌리기도 힘들었다. 가늘고 길었던 목은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었다. 분희는 집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았다. 동네사람들은 분희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수군거

렸다.<sup>16)</sup>

위의 인용은 강분희의 앞으로의 험난한 삶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강분희는 피폭이 아니었다면 부친 친구 아들 박동철과 결혼할 사이였다. 그런데 박동철도 피폭자로 생사조차 모르고 있었다. 강분희는 모친의 강한 의지로 시집을 가기로 결심한다.

강분희는 결혼한 지 다섯 달 만에 임신을 했다. 그러나 유산되고 말았다. 두 번째 임신한 아이는 출산 과정에서 죽고 말았다. 피폭자 중 세 명의 하나가 유산이나 사산, 그리고 아이가 살았어도 장애아일 경우가 높다는 것이다. 당시 강분희는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다. 시어머니는 분희에게 집안에 병신년이 들어와서 집안을 말아먹는다고 욕설을 해대고, 남편은 강분희를 뒷산으로 끌고가 쓰레기 버리듯 내팽개쳤다. 강분희는 죽기를 결심하고 벼랑 끝에서 몸을 날렸다. 그러나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 낙엽위에 떨어져서 기절한 채로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살아 돌아왔다.

이 소문이 부친 강순구의 귀에 들어갔다. 동생 태수가 누나를 시집에서 데리고 나와 친정에서 살게 했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박동철을 만나게 된다. 박동철 역시 분희를 보자마자 분희가 결혼을 했건,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건 상관없이 무조건 분희와 결혼 하겠다고 하였다. 강분희는 박동철과 결혼을 한다.

“분희야” 동철이 부르는 소리에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마당 한 가운데 놓인 지게에 분홍빛 진달래가 한가득 이었다. 동철이 진달래를 양손 가득 들고 있었다. (중략) 동철이 진달래 꽃가지를 분희에게 내밀었다. 꽃 한 송이를 따서 분희의 흉터에 살짝 갖다 댔다. 꽃잎이

16) 김옥숙, 『흉터의 꽃』(새움, 2017), 39면.

흉터에 닿았다. 나비의 날개가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분희는 눈을 가만히 감았다. 마치 동철이 흉터에 약을 발라주는 것만 같았다. 꽃으로 만든 약, 동철의 마음으로 만든 귀한 약이었다. 분희는 비로서 온전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다.<sup>17)</sup>

작품 『흉터의 꽃』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다. 또한 작품의 제목인 ‘흉터’와 ‘꽃’의 의미를 잘 타나내 주는 대목이다. ‘흉터’는 강분희의 상처 가득한 삶과 원폭피해자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병고, 가난, 사회적 차별 등을 상징하는 것이고, ‘꽃’은 사랑과 생명을 의미한다고 본다. 흉터 위에서도 꽃을 피워낸 원폭피해자들의 삶에 대한 치열한 의지와 용기의 표현일 것이다.

강분희와 박동철의 사이에 장녀 인옥, 장남 인규, 차남 인우가 태어났다. 인옥은 어릴 때부터 다리가 부실해서 자주 넘어지곤 했다.<sup>18)</sup> 장남 인규는 인옥과 네 살 차이로 분희를 빼닮아 동철은 인규에게 사족을 못 썼다. 인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병치레를 자주 했다. 그러다가 서너 살 되던 해 갑자기 고열로 급사하고 만다. 동철은 인규가 죽자 집을 나가버린 후, 3년 만에 딴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그렇게 아꼈던 분희한테 욕설과 폭력을 휘둘렀다. 동철은 간경화에 당뇨병으로 상처 난 다리가 아물지 않아 결국 다리를 절단하고 만다. 그 후 황달이 심해지고 복수도 차고 자주 혼절하다가, 결국 5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달리하고 만다.

주인공 정형재의 인터뷰 도중에 강분희는 남편 박동철의 죽음까지 이야기 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딸 박인옥

17) 김옥숙, 『흉터의 꽃』(새움, 2017), 233면.

18) 후에 원폭병으로 ‘대퇴부무혈성괴사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진다. ‘대퇴부무혈성괴사증’은 넓적다리 뼈 위쪽의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 질환이다.

을 소개해 주었다. 정현재는 박인옥을 만나 인터뷰하게 되고, 그로부터는 원폭 2세대 이야기가 전개된다.

### 3.3.2. 현재-원폭 2세대 이야기-

박인옥, 그녀는 원폭 2세대로 대퇴부무혈성괴사증을 앓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경미한 소아마비 환자처럼 걸을 때면 몸이 한 쪽으로 기울어져 절뚝거리며 걸었다. 스물네살에 백종수와 결혼해서 백진수, 백진호 두 아들을 두었다. 장남 백진수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둘째 아들 백진호는 건강한 원폭 2세대.

박인옥은 첫아이가 뇌성마비로 태어나자 그렇게 다정하게 대했던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놀음과 여자에 빠져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시어머니 역시 사내는 계집 하기에 딸린 거라며, 다리 병신 계집에 병신 자식에 누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며 인옥을 나무란다. 박인옥은 결국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두 아들을 두고 집을 나오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다.

박인옥은 돈을 벌기 위해 직물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간병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서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간병인으로 일하는 동안 자신이 간병을 해 주었던 슈퍼주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지만, 남편의 외도와 학대, 사기 등으로 결국 이혼을 한다.

박인옥은 다시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진호와 연락을 취하며 지내다가 진호의 부탁으로 진수와 치매와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 간병을 하게 된다. 뇌성마비 진수는 동생 진호가 글씨를 가르쳐 준 덕분에 보드판에 “엄마 보고 싶었어요”라고 엄마 인옥을 반긴다.

이즈음에 박인옥은 친정어머니인 강분희한테서 합천에 생긴 원폭 복지회관에 입주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는다. 박인옥은 원폭복지회관에서 행한 원폭 2세 환우 첫모임에서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인물을 만난다. 바로 김형률 원폭 2세 환우회 회장이었다.

어머님이 원폭 피해자이고 .....저는 폐가 정상인의 20 내지 30퍼센트 정도 밖에 기능을 못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폐렴으로 집과 병원을 오가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 주위에는 원폭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겪고있는 .....2세, 3세들이 많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핵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원폭 2세 환우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sup>19)</sup>

김형률은 작품 속에서 실명 그대로 나온다. 인용문 중간 중간에 ‘.....’은 연신 기침을 하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김형률은 2005년 35세로 세상을 달리 할 때까지 ‘선천성 면역글로불린결핍증’이라는 원폭병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다.<sup>20)</sup>

박인옥은 2008년에 원폭 2세 환우회 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박인옥은 김형률이 만들어낸 작은 생명의 물줄기를 이어 받아 원폭 피해자가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죽을 때까지 활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폭 2세 환우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힘썼다.

한국에서는 원폭 피해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강요당해 온 것이다.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일본 정부의 차별적인 피폭자 원호 정책으로 한국인 피폭자들은 인권이 유린된 삶을 살아내야 했던 것이다.

19) 김옥숙, 『흙터의 꽃』(새움, 2017), 421~422면.

20) 김형률은 2004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하게끔 하였고, ‘한국 원자폭탄 피해자와 원자폭탄 2세 환우의 진상규명 및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애쓰던 중에 지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달리 하고 만다. 유고집으로 『나는 반핵인권에 목숨을 걸었다』(행복한책읽기, 2015)가 있다.

### 3.3.3. 미래-원폭 3세대 이야기

작품 속 주인공 정현재와 등장인물 박인옥, 실존인물 그대로 등장하는 김형률을 대표로 하는 원폭 2세대의 이야기에 이어,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박인옥은 초혼인 백종수 사이에 백진수, 백진호 두 아들을 두었다. 차남 백진수는 생후 3개월 때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 남편은 원폭 맞은 병신 집안에 장가를 잘못 들어서 병신이 태어난 거라며 처갓집 욕까지 했다. 시어머니는 어미가 병신이라서 자식도 병신이라고 방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다. 백인옥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원폭병이 유전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짐작 못했던 것이다.

차남 진호는 다행이도 건강한 원폭 2세로 대학교 1학년 때 봉사활동에서 만난 동갑내기 송현서와 10여년 사귀다가 결혼을 했다. 송현서는 결혼 전에 진호로부터 원폭 피해를 입은 집안이고 동생은 선천성 뇌성마비라는 것을 듣고도 백진호를 결혼상대자로 선택하였다. 두 사람은 결혼 후 건강한 딸 백해인을 낳았다. 백해인은 원폭 1세대 강분희와 박동철 집안의 3세대로 원폭증이 유전되지 않은 건강한 원폭 3세인 것이다.

비록 작품 속이지만, 백해인의 현재 나이를 추정해 보면, 2008년에 박인옥이 원폭 2세 환우회 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차남 진호가 결혼을 하고 해인이가 태어났으므로, 지금을 초등학교생이 되었을 것이다. 즉 2020년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생 정도가 원폭 3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작품 속 주인공인 건강한 원폭 2세 정현재는 누나와 여동생이 있는데 모두 건강하다. 다만, 정현재의 딸 정채현은 다운증후군으로 장애아로 원폭 3세 환우이다.

#### 4. 한국 원폭 피해 여성들의 삶

한국인이 원폭피해를 받게 된 배경에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식민지배이다. 『흉터의 꽃』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의한 수탈과 탄압으로 인한 가난 때문에 고향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경우가 많다.

특히 히로시마에 정착하게 된 한국인들은 히로시마 주변부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한국인 마을을 형성하여 가까운 친인척은 물론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어렵지만 서로 도우며 살았다고 한다.<sup>21)</sup>

그러나 일본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르면서 일본인들로부터 차별 받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생존을 분투하다가 원폭피해를 입은 것이다. 결코 개인의 잘못으로 원폭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모았던 재산은 원폭 투하로 대부분 잃어버렸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또 잃어버렸다. 고향에 돌아왔으나 구입해 둔 농토가 있는 경우에도 그 농토에 기대어 살고 있었던 친인척이 반환하기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돌려주어 원폭피해 가족의 삶은 아픈 몸과 함께 가난은 계속 이어져만 갔다.

『흉터의 꽃』의 강순구 역시 일본에서 처갓집에 돈을 보내 모아 두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처갓집 역시 큰 처남과 작은 처남이 일본 탄광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탄광이 무너지는 바람에 둘 다 사망한 것이다. 그래서 강순구가 부쳐주는 돈으로 장인과 장모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도 무일푼으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가난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입 하나 덜기 위해, 또는 밥이라도 굶지 않고 먹기 위해 결혼을 해야 했다. 결혼

21) 김경애, 『원폭 피해 한국 여성들』(푸른사상, 2019), 373면

은 부모의 뜻에 따라 무조건 해야 했고, 성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여 남편과의 첫날밤 관계는 대부분 두려움에 떨면서 강제로 이루어졌다.<sup>22)</sup> 그녀들은 거의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야만 했다. 그래서 남자의 폭력성, 도박,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정보 없이 결혼하여 결혼 후에 남편의 폭력과 외도 등으로 불행한 생활을 보내게 된다.

게다가 원폭피해 여성들은 화상을 입은 자국이나 원폭병으로 인해 정상인처럼 생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폭언과 차별, 무시 등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견뎌내야만 했다. 또한 원폭병이 유전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임신 중의 유산, 사산으로 인한 고통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 그 위에 태어난 아이가 장애아인 경우는 주변의 온갖 멸시를 평생 업보처럼 여기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흉터의 꽃』에 나타난 원폭피해 여성들의 삶을 살펴보더라도, 원치 않은 결혼과 가정폭력, 멸시 등을 고스란히 받으며 삶을 유지했다.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원폭피해 여성들의 삶이나 그들의 원폭피해 보상과 치료를 위한 투쟁과 인권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흉터의 꽃』을 통해 원폭 피해 여성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5. 나오는 말

한국 최초의 원폭소설이라고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작가 김옥숙의 『흉터의 꽃』을 고찰하면서 원폭 투하로 인한 참상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아울러 작금의 한국을 둘러싼 외교 상황을 볼 때, 국가 간의 이해관계는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인 면이 우선시 되고 경제적인 면으로 인해 좌지우지 되어 언제든지

22) 김경애, 『원폭 피해 한국 여성들』(푸른사상, 2019), 376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흉터의 꽃』은 평범한 여성들이 원폭병에 걸려 인생이 뒤틀려 지는 것을 처절하면서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피폭이라는 비일상이 이 작품에서는 일상성으로 전환되어 나타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원폭 피해 여성들의 삶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다시는 원폭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흉터의 꽃』은 작가 김옥숙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한다.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 속 주인공 정현재를 빌어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한다.<sup>23)</sup> 작가 역시 건강한 원폭 2세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작가의 원폭피해 관련 기술은 생략했다. 작품은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현재의 이야기와 원폭피해 여성들의 인터뷰 내용을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작품으로 완성시켰기 때문에, 필자는 작품 중심으로 고찰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인 작가가 작품 속에서는 남성인 정현재를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 간 점에 대해서는 남성을 통해 원폭피해 여성의 삶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원폭피해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섬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주로 원폭피해 여성들의 피폭 현황, 여성들의 삶 등을 주로해서 기술했지만, 본 논문을 시점으로 해서 『흉터의 꽃』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한다.

23) 김옥숙, 『흉터의 꽃』, (새움, 2017), 작가의 말.

**[ABSTRACT]**

A study on the Atomic Bomb Literature in Korea

-Focus on Flower of Scar-

Lee, Jung-hee(Uiduk University)

In August 1945, the atomic bomb dropped in Hiroshima, and Nagasaki, resulting in Japan's unconditional surrender World War II. Mankind's first atomic bomb caused untold casualties and countless people died of even after the blasts due to acute radiation exposure. Later, authors began making presentations by using the materials and materials that they experienced in their experiences and artifacts they uncovered in the rubble. These efforts led to the creation of "Atomic Bomb Literature" or simply "Atomic Literature".

On the other hand, although Korea has the second largest number of atomic bomb victims after Japan, there were no literary works dealing with atomic bomb. By the way, in 2017 in Korea, "Flower of Scar", a novel that deals with atomic bomb damage, was published in earnest. It is Korea's first A-bomb novel. This paper analyzes the novel by the author Kim Ok Sook. I want to show how scary the atomic bomb is and how atomic bombs make humans exhausted by looking at the atomic bomb damage and the lives of the victims in the novel.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ope that there is no more atomic such bomb damage on this planet. Would like to tell you how destructive the atomic bomb is for

humans. I want to let you know how atomic bombs make humans exhausted by looking at the atomic bomb damage and the lives of the victims's victims in her work.

**Key words:** Atomic Bomb Literature, Korean Atomic Bomb damage, Kim Ok Sook, Flower of Scar, Hapcheon

[ 참고문헌 ]

□ 단행본

- 곽귀훈,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 민족문제연구소, 2013.  
김경애, 『원폭 피해 한국 여성들』, 푸른사상, 2017.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2017.  
김옥숙, 『흉터의 꽃』, 새움, 2017.  
김형률, 『나는 반핵인권에 목숨을 걸었다』, 행복한책읽기, 2015.  
박수복,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창원사, 1975.  
이실근, 『나의 히로시마』, 논형, 2015.  
전진성,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휴머니스트, 2008.  
존허시, 『1945 히로시마』, 책과함께, 2008.  
정병호, 최가형, 『일본의 재난문학과 문화』,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허광무, 『히로시마 이야기』, 선인, 2013.

□ 논문

- 이행선,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증언과 서사, 원폭문학:김옥숙, 『흉터의 꽃』 (2017)」, 『기억과 전망』 39호, 2018, 148-190면  
이정희, 「일본 원폭문학의 효시 하라 다미키(原民喜)의 『여름 꽃(夏の花)』 고찰」, 『국제언어문학』 37호, 2017, 207-224면.  
\_\_\_\_\_, 「일본 원폭문학의 대표작 이부세 마사지의 『검은 비(黒い雨)』 고찰」, 『일본문화학보』 75집, 2017, 277-301면.

접수일: 2020.07.16 총평일: 2020.08.20 게재확정일: 2020.08.28